

혜경스님의

## 경전읽기

### 법화경 ②서품

서품(序品) 즉 서(序)란, 발단(發端) 또는 '실마리'란 뜻인데, 사연(事緣)이라고도 한다. 원래 이 '서품'은 경전을 모두 작성한 후 마지막으로 쓰는 것으로, 이 속에는 경전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서품'이라고 해서 그저 〈법화경〉을 설하게 된 사연,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왜 설했는가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경전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 서품이기 때문이다.

우선 〈법화경〉은 보살행을 가르치는 것(敎菩薩法)이며, 모든 부처님이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할 넓고 큰, 최고의 경전임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믿고 간직하는 사람을 항상 보호하시는 가르침(佛所護念)이다.

첫번째로 보살행을 가르친다는 것은 중생의 근기를 성숙시켜 브살로 인도하고 그 보살들이 해야할 일들 즉 보살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가르침이란 말이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아상(我相)과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과 수자상(壽者相)이라는 네 가지의 생각(四相)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데 반해, 〈법화경〉의 가르침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가아(假我)나 브라흐만 교(婆羅門敎)의 실아(實我)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中道)인 진아(眞我)를 찾아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는' 이른바 제법실상(諸法實相)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물론 제법실상이라는 말에는 만물만상은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진아 즉 진리(眞理) 또는 우주의 대생명(大生命)이 현상세계에 나타난 것이라는 뜻에서 천태 대사(天台大師)는 "제법은 실상이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심부름꾼(使者)으로서 부처님을 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전하여 그들을 모두 보살로 인도하자는 것이 교보살법이라는 것, 즉 보살을 훈계하며 그들이 모두 흰 연꽃(白蓮華)처럼 더러운 세속(世俗)에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染) 말아야 함을 가르친 것이다.

특히 '서품'에서는 부처님이란 우주의 대생명 즉 진리이며 그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수많은 '일월등명불(日月燈明佛)'과 '연등불(燃燈佛)'을 등장시키고 있다. 즉 처음의 일월등명불이 세상을 떠나자 또 일월등명불이 출현하였으니 이렇게 하기를 계속, 2만의 일월등명불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최후의 일월등명불의 여덟 왕자 가운데 맨끝에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라는 연등(燃燈) 또는 정광(錠光)여래라고 하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셨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모두가 광명(光明)이라는 뜻이므로 이름하여 비로자나(毘盧遮那) 즉 바이로차나(Vairocana)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란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아미타바(Amitabha) 즉 무량광(無量光)이며 아미타유스(Amitayus) 즉 무량수(無量壽)이다. 이렇게 부처님이란 공간적으로 일체변조(一切遍照)임과 동시에 시간적으로 영원(永遠)한 것이므로 2만(二萬)의 부처님이 똑같은 이름의 일월등명불로 출현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부처님들은 모두가 여래(如來)이시다. 여래란 진리를 몸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는 실천의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혜를 완성한 사람이라도 중생을 건지지 못한다면 부처님이라 할 수 없으며, 부처님이 되려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서품'의 에센스라 하겠다.

▩무설정사 조실

## 중생 구제할 수 있어야 부처

### 우주 대생명인 부처님 심부름꾼으로 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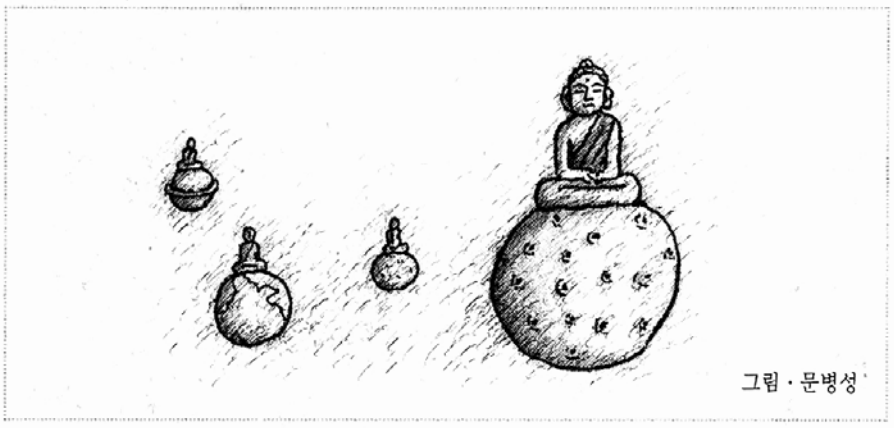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 태양계 사라져도 불법은 영원



이시우 박사가 쓰는

## 불교와 수주 ④

### 태양의 일생

우주에는 질량이 태양의 1/10에 불과한 작은 별에서부터 태양의 100배가 넘는 것까지 다양한 별들이 존재한다. 태양은 별들 중에서 중간 정도의 질량을 가진 평범한 별이다. 47억 년 전에 거대 성운에서 분리된 원시 태양계 성운의 크기는 지구-태양간 거리의 100배 이상이었으며, 약 1억 년이 지난 46억 년 전부터 원시 태양계 성운의 중력수축으로 태양과 그 주변 행성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수백만 년의 잉태기를 거친 후에야 태양은 빛을 내는 별로서의 일생을 시작했고, 그 후 약 8천만 년간의 불안정한 유아기를 거친 후 안정된 청년기를 맞아 오늘날까지 지내오고 있다.

태양이 안정된 모습을 찾아 청년기에 이르렀을 때부터 46억 년이 지나는 동안 태양은 처음보다 약 2배정도 더 밝아졌다. 현재 태양이 매초마다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양은, 중심부에서 약 10메가 톤(천만 톤의 TNT 폭약에 해당) 규모의 수소폭탄(미국이 최초로 실험한 수소폭탄의 규모)이 매초마다 100억 개씩 폭발할 때 나오는 에너지량에 해당한다. 이 때 발생한 복사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면서 낮을 밝히고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에 생명의 빛을 쏘고 있는 것이다.

**47억년전 기체덩이 태양탄생**

**주위 행성에 '생명의 빛' 방출**

**50억년 지나면 빛 잃고 소멸**

태양 크기의 1/4쯤 되는 중심부의 온도는 약 2천만℃이며, 여기서 수소 핵 융합반응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핵에너지가 바깥으로 전달되어 빛으로 나오게 된다. 태양 빛이 물질에 흡수되지 않고 직접 밖으로 나오는 영역을 광구라 하는데 태양의 표면층에 해당한다. 이것의 두께는 약 600㎞이며 온도는 약 6000℃이다.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태양은 바로 광구이며 그 안쪽은 전혀 볼 수 없다.

태양 자체는 매우 뜨거운 기체 덩어리이므로 모든 원자들은 양전기를 띄는 양성자와 음전기를 띄는 전자들로 분리되어 모여 있다. 이런 하전입자들로 이루어진 물질을 '플라스마'라 한다. 결국 태양이나 빛을 내는 모든 별들은 매우 뜨거운 플라스마 구(球)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구처럼 단단한 고체표면을 가지지 못한다.

광구 바깥쪽은 매우 희박한 기체로 이루어진 대기이다. 여기서는 홍염이나 플레어 같은 대기물질의 심한 분출이 일어나고 있다. 작은 망원경으로 태양을 투영판 위에 비쳐보면 검은 점들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흑점이라 한다. 이러한 흑점은 태양 내부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어 흑점 활동이 심할 때는 태양의 대기활동도 격렬해 진다. 이때 많은 입자들이 태양 밖으로 방출되는데 이를 태양풍이라 한다.

이 세상에서 아주 조용한 상태란 잠시 동안 존재할 뿐이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상태는 주위의 물질과 깊이 연관되어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스스로 변화에 적응해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조용해 보이는 태양도 안쪽에서는 심한 폭발이 일어나고, 바깥에서는 심한 대기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곧 태양이 살아 있다는 징표이다. 심장박동이 아주 일정한 상태로 이어질 때는 숨이 끊어져 가는 상태를 예고하며, 젊은이의 심장박동이 극히 불규칙한 것도 활동적인 젊음의 특징이다.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쯤 더 지나면 1000배 정도 더 밝아지고 크기도 지금보다 170배로 팽창하여 거성이 되면서 금성 궤도까지 뻗치게 될 것이다. 이때는 매우 강한 태양풍과 자외선 때문에 지상에 생명체가 있다면 곧 멸종해 버릴 것이다. 붉은 색을 띄게 되는 태양의 표면온도는 약 3000℃로 낮아지고,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타고남은 헬륨이란 음식을 만들 준비를 하는 노년기에 접어든다. 헬륨이란 음식을 먹고 나서 탄소라는 찌꺼기가 남으면 더 이상 음식을 만들 수 없어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 많은 물질을 밖으로 방출하면서 중심부에 초고밀도의 백색 왜성(矮星)을 남긴다. 이 때 태양의 나이는 110억 살쯤이며, 잔해는 천천히 식어 가다가 빛을 내지 못하는 암체가 되고, 태양 주위를 도는 모든 행성은 빛이 없는 암흑의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상의 생명체가 모두 사라지는 종말을 맞이한다면 불법도 지구와 함께 사라질까? 만약 그렇다면 불법은 지구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자연의 이치를 두루 내포하지 못하는, 지극히 지엽적이고 편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법은 자연의 신(神)이요, 자연의 조화로움이며, 만유의 생주이멸을 이끌어 가는 이치다. 지구가 사라져도 우주에는 수많은 다른 지구와 생명체가 이를 따를 것이므로 불법은 우주와 영원히 함께 한다. 따라서 불법은 절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스님만의 것이 될 수도 없는 만유의 것이며, 무한의 시간과 함께 한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 갈곳없는 빈민층 환자 요양소 세워 진료

### 지구촌 불교 / 泰 사찰 에이즈 구호

생사의 갈림길에 선 에이즈 환자를 돌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하는 사찰이 태국에서 화제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에 있는 프라밧남푸 사(寺)가 현대판 흑사병으로 알려진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앓고 있는 태국인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

방콕 포스트 지에 따르면 프라밧남푸 사는 92년부터 이 일에 관심을 보여 왔는데, 특히 치료비는 고사하고 생활비조차 없는 빈민계층의 환자들이 행정당국과 부유한 태국인들과 후원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이들이 병원을 다니며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임종을 맞는 환자들의 장례식 비용도 도맡고 있다. 태국에서는 불교식 장례를 치를 경우, 평균 1만 바트(약 28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는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 일에는 프라밧남푸 사의 주지인 알롬콧 티카라뇨 스님이 앞장서고 있다. 스님은 태국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에이즈 환자 요양시설을 제안한 인물로도 유명한데, 프라밧남푸 사 역시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 개원했다. 현재 100여 명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재원이 마련되면 태국 각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독교 · 가톨릭 적극 협조**

**1만명까지 치료 계획**

**성교육 통해 질병 예방**

**6개월간 새 감염자 '전무'**

알롬콧 티카라뇨 스님은 호주에서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프라밧남푸 사를 중심으로 에이즈 요양시설 설립을 위한 7단계 계획을 세웠다. 현재 프라밧남푸 사 근처에서 제 1단계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 1만여 명의 에이즈 환자들이 보금자리를 갖게 된다.

알롬콧 티카라뇨 스님은 "에이즈 환자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태국 사회에서 이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게 태국 불교계의 도리라는 생각에, 이 일을 구상하게 됐다"며 "자급자족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환자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료환자들을 위한 수발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된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태국의 에이즈 환자 또는 보균자는 8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에이즈로 사망해 생긴 고아만도 8만여 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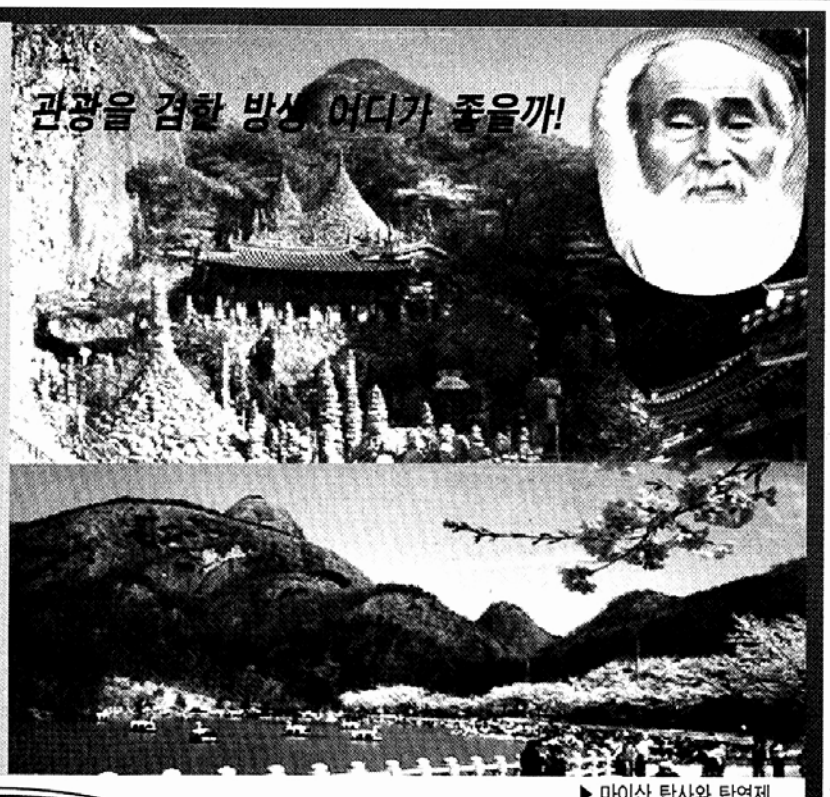
스님의 생각은 프라밧남푸 사가 있는 롭 부리 지역과 인근 무앙 파야요 지역의 스님들에게 호응을 얻어, 두 지역의 사찰들이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성교육에 나서는가 하면, 에이즈 진료소를 자청, 약물 치료의 장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 지역의 사찰들은 에이즈 환자 발생 방지를 위한 계몽운동을 펼치며 지역 주민들의 신심을 점검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오랜 적으로 여겨온 기독교와도 손을 잡았으며 가톨릭 수녀들도 에이즈 감염 환자 실태를 조사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태국 내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던 무앙 파야요 지역의 경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 6개월간 새로운 감염자가 전혀 생기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대해 방콕 포스트 지는 "에이즈로 바람 잘 날 없는 태국에서 불교계의 헌신적인 노력이 에이즈 환자에게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태국 불교계의 서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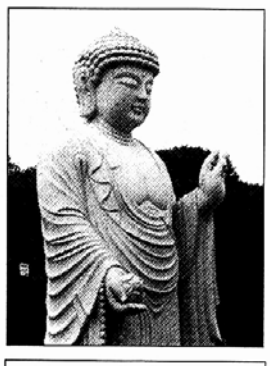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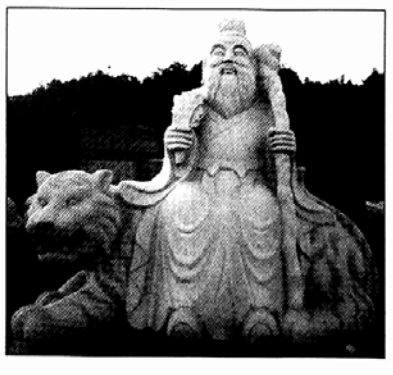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